
2020년 제11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 3. 6. ~ 3. 12.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3. 6.	시청률	0.025

【총 평】

<여러분의 북마크> 제59회는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송된 ‘코로나 19 예방법’을 소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계의 현황을 살펴볼 때마다 북한의 실태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잘 다루어 주어 유익했다.

‘북마크 TV’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북한의 모습을 그렸는데 2020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조선중앙 TV에서 방영한 “코로나 19 예방”을 요약해 “북한방송을 통해 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다뤘다. ‘단박톡’에서는 북한 총정치국과 북한 군대 이야기, 달라진 북한 군대, 남북 평화를 위한 남북한 군인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았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난 3월 3일과 4일에 벌어진 남북관계, 즉 ‘김여정의 청와대 비난 담화’로 남북관계가 부정적이었던가, 하루 만에 남북정상 간의 친서 교환’에서 보여주는 의미 등을 언급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성 및 내용】

<여러분의 북마크>는 KBS <남북의 창>이나 MBC <통일전망대>와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별화 된 구성으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북마크 TV에서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북한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했는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정보전달 측면에서 돋보였다. 특히, 손 씻기의 중요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어린이들이 쉽게 예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든 북한의 애니메이션 질병예방만화가 흥미로웠다. 이와 함께 북한의 비상방역지휘부 기능과 역할, 북한방송을 통해 본 코로나19 사태와 보도, 북한방송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북한 병원 코로나19 대책, 북 코로나19 예방 제품 개발 등에 대해 방송했다.

북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수시로 방송하고 따뜻한 음료 마시기와 손 자주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어, 코로나19가 북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단박톡에서는 북한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잘못 알려진 내용과 편견을 깨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북한 총정치국 출신 출연자가 직접 출연해 그 체계와 분위기를 전해서 더욱 설득력이 높았다.

북한 군인의 군복무 기간은 남자가 10년, 여자가 7년으로 여전히 북한의 군복무기간은 길다는 설명과 북한 군인은 싸움을 잘한다, 북한 군인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편견 등을 자세히 다루고 세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북한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이 밖에 북한의 군 입대 신체조건과 훈련 강도, 북한 군대 내 식량보급 상황, 북한 군인들의 월급 등을 다루었다. 현재는 북한의 군대도 많이 나아져, 사병이 장교의 휴대전화를 빌려 부모님께 안부를 전한다는 변화된 모습도 알려주었다.

프로그램	밥보다 법		
방송일자	2020. 3. 7.	시청률	0.107

【총 평】

국민의 관심이슈를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본격 대국민 소통 라이브 쇼 <밥보다 법>이 첫선을 보였다. 시청자들이 평소 궁금한 생활법률을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콘셉트여서 앞으로 법률 상식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연을 콩트로 재연하는 ‘밥법드라마’, 스페셜 게스트 오늘의 법짱이 출연하는 ‘법률다락방’, 생활법률 꿀팁을 랩으로 전달하는 ‘드랩 더 LAW’ 코너 등 다양한 구성이 흡인력을 높였다.

첫 회에서는 대중성이 높은 소재인 부동산 매매가 다뤄져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법원을 통한 솔루션으로 변제공탁 등이 소개돼 수용자에게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 또, 짜파구리 요리를 먹으며 토크를 이어가는 <밥상머리 토크>도 예능과 흥미요소를 가미해 딱딱한 법률상담의 양념역할을 했다.

【구성 및 내용】

대한민국 노후대비 1위를 차지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상식을 다루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분쟁과 관련 알아두어야 할 법적 효력 사항을 제시하였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기본적인 법적 내용 등을 전달했다.

■ 밥법 드라마 → 매도인이 잔금 받기를 거부해요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치루기 전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에게 이중매매를 한 경우를 상정했는데, 이중매매는 개발호재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호가가 급격히 뛰어 매도인의 과한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발송을 증명하는 제도일 뿐 특정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신력 있는 편지로 보면 된다.

특히,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의 해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한다면 형법상 이중매매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법원을 통한 공탁이 가능하다.

이중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경우 이중매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중매매인과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첫 번째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SNS 라이브 댓글 상담

임대차 계약서 특약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준다는 특약조건이 있는데 새임차인을 구하는 기간 3개월,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임차인 구하지 못하더라도 보증금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선점하기 위해 돈의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가계약 효력이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및 한도는 전해져 있으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 소리		
방송일자	2020. 3. 7.	시청률	0.097

【총 평】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는 ‘청정 무안 갯벌, 무안의 흙’을 소재로 겨울과 봄 사이 ‘꿈틀대는 생명력’과 초록빛으로 물든 전라남도 무안 갯벌, 생명의 무안 바다 속 흙과 삶을 담은 “무안, 흙에 기대 삶을 짓다”편을 방송하였다. 무안에서 감태를 채취하는 아주머니, 텃밭에서 나물을 캐 장에 가서 파는 할머니, 흙을 빚으며 분청사기를 굽는 명장 등 무안에서 흙에 기대어 삶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연의 소리를 담아냈다.

특히, 갯벌의 감태와 함께 해온 어촌 아낙네의 고달프고 힘들었던 삶을 조명하고, 한평생 무안을 지키며 여든의 나이에든 여전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 촌로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 울림 있었다. 또, 도예지가 많은 무안을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분청사기 명장의 흙으로 빚어 온 삶을 깊이감 있게 조명해 몰입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겨울과 봄 사이 초록빛으로 물든 무안의 갯벌과 청정감태가 조화를 이룬 이색적인 장관을 담아내 이목을 끌었다.

■ 어촌 아낙의 삶

감태를 채취하는 아주머니의 부지런한 모습을 몰입도 높게 담아냈다. 감태 수확의 기쁨을 주는 갯벌에서의 노동을 끝내고 돌아온 감태 아주머니의 고된 노동을 밀도 있게 담아내 어촌 아낙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무게감 있게 전달했다. 또, 감태전, 감태 무침이 올라간 소박한 감태 밥상과 건강할 때까지 감태를 수확하고 싶다는 아주머니의 바람이 울림 있게 다가왔고 갯벌에 기대어 산 시간이 잘 전달됐다.

■ 사람냄새 나는 무안 5일장의 정겨움

전남 무안을 고절리를 찾아가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된 무안 할머니의 하루를 쫓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소개했다. 특히, 80대 할머니가 텃밭의 작물들을 자식처럼 일궈 무안 5일장에 파는 일련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할머니의 남모를 사정을 알아주는 이웃의 따뜻한 정과 무안 5일장의 사람 냄새나는 정겨움을 여운 있게 담아냈다.

■ 분청사기 도자기 명장

무안의 진흙으로 도자기를 구워 온 도자기 명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도자기 제작 과정을 잘 담아냈다. 전북 무안 몽탄면을 찾아가 무안 흙을 삶의 터전 삼아 한평생을 살아온 분청사기 명장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무안은 600여 년 전부터 도예지가 많아 우리나라 전통의 분청사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곳이었다. 도예 흙을 채취하는 모습과 무안 흙이 가장 귀하다는 명장의 이야기와 명장이 정성스럽게 빚어낸 도자기가 뜨거운 불 속에서 달궈져 분청사기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손길을 거치는 일련의 고된 과정을 무게감 있게 담아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3. 8.	시청률	0.019

【총 평】

<PD리포트 이슈본>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올 1월부터 국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공적 책무수행과 국민들의 온정이 함께하는 현장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 우울감, 갈등,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사람들을 소개하며 국난 극복 메시지와 힐링이라는 감동을 선사하는 내용의 기획이 탁월했다. 또, 코로나19의 극복 의지와 국민 통합을 위한 상생의 움직임을 사례별로 제시한 구성이 돋보였다.

우한교민을 반대하다 환영으로 돌아선 지역주민, 의료진의 자발적인 동참, 방역에 앞장선 시민봉사단, 소상공인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혈액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헌혈 기적, 구호물품 제공, 달빛 동맹 병상 나눔 등 소개된 사례는 하나같이 감동을 주고 국난극복 의지를 확인하는 살아있는 사례였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경제적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지역 경제 살리기 등 공공채널로서 사회적 책무에 기여했으며, 상생이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초기의 반발심리에서 상생으로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사례는 현명한 집단지성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이다’ 등 다양한 캠페인이 잘 대변해 주었다.

대구시의사회의 호소로 전국에서 260여명의 지원인력이 대구로 모였고, 대구 외식업체는 음식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식당에 남은 식자재를 구매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통장협의회 사람들이 곳곳을 돌며 방역을 위해 소독하는 현장을 소개했는데 ‘언제나 시민은 옳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했다.

또, 전주 한옥마을의 상생 선언으로 임대료 인하해주기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감소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은 지난달 12일 임대료 인하 협의를 통한 상생선언을 하였고, 추가로 전주 상권 건물주 64명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이에 정부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인하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정부 소유 재산 임대료를 내리는 한편 공공기관 소유재산 또한 6개월간 임대료를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자제 및 헌혈자 감소로 전국적으로 혈액수급이 어려웠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취소되었던 단체헌혈이 재개되었고 개인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혈액 수급량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었다. 직원 인터뷰에서 ‘의지와 의리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이번 취재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KTV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		
방송일자	2020. 3. 8.	시청률	0.049

【총 평】

<KTV 웹툰다큐 멋진 공무원>은 “1%의 사고 가능성에도 대비하라!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를 소개했다. 촌각을 다투는 산악사고를 대비한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의 활약상과 훈련 모습, 그리고 그들의 사명감을 화면에 담았다.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원의 활약상과 열악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의 근무하는 모습, 가장으로서의 모습 등 1%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는 산악구조대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주었다.

2012년에 출범한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의 철학이 대원들을 통해 잘 드러났고, 산이 좋아서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산중 응급환자를 찾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119 산악구조대원들의 모습을 역동적인 화면으로 잘 담아냈다.

【구성 및 내용】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의 활동을 소개했다. 응급구조 상황, 출동장비 점검 내용, 24시간 근무 체계 등 산악구조대라는 직업이 워낙 특수적이고 전문적인 상황에서, 업무나 활동 내용들이 시청자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119 구조대원의 섬세함이 프로그램에 잘 묻어났다. 어깨끈으로 고정해 환자를 업고 이동하기, 처치 시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상황 설명해주기, 암벽 사고에 대비한 장비들, 2인 1조 철야 근무, 국립공원 내 위치한 119 산악구조대 사무실 명암, 구조 에피소드, 대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악로 탐색 등 북한산 119 산악구조대원들의 숨 가쁜 일상을 보여주었다. 또 여대생 구조 사례를 웹툰으로 잘 그려냈다.

오늘 방송은 북한산 산악사고로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방송 전체적으로 보아 가장 긴박감 넘치고 가장 몰입력도 높았던 장면이다. 응급처치 후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내어 현장감을 높였고 구조 업무 하나 하나에서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침 출동 장비 점검으로 시작해서 헬멧, 고글, 로프, 고리 등의 장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고 무엇보다 이 무거운 장비들을 들고 출동하는 구조대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장비 소개에 이어 시뮬레이션 점검도 이어졌는데 훈련이지만 실제 상황처럼 연습을 이어나가 소방대원들에 대한 신뢰감도 높아지는 것 같았다.

또, 주간 업무가 끝나고 야간 업무로 돌입해서 야간 업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다소 여유로운 분위기와 야식을 즐기며 가족 이야기를 하는 훈훈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퇴근 후 일상에서의 가장으로서의 모습, 가족들의 걱정과 우려도 함께 다루면서 소방대원으로서의 삶을 재조명했다. 특히, 아내의 인터뷰에서 구조 일을 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걱정과 우려가 잘 표현되어 있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 PPE 검사관 교육과 매듭법 시연 등을 통해 또 한 번 구조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구조대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을 강조했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3. 9.	시청률	0.010

【총 평】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KTV의 공적책무 수행이 돋보이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뉴스를 신속한 정보로 집중 보도해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코로나19 뉴스와 함께 유용화의 오늘의 눈, 오늘의 브리핑, 코로나19상황실까지 관련내용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다룬 신속성과 심층성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뉴스 대부분을 코로나19 관련 뉴스로 집중 배치했다.

특히 뉴스 내용중 확진자 증가세 둔화 소식을 분석하면서 낙관은 금물이라는 대통령의 당부와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설득력을 제고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풍문을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리포트가 탁월했고, 미국과 외신, 세계 보건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역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 주목을 끌었다.

【구성 및 내용】

■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확진 감소세…낙관은 금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단계에 어간다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낙관은 금물이라며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마스크 5부제 첫날…“신분증 챙겨야”

출생연도 끝자리와 마스크 구입을 연계한 마스크 5부제 시행 소식을 밀도 있게 살피고 시행 첫날 현장 모습을 집중 조명하고 차분하게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큰 혼란 없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해 이목을 끌었다.

■ “매점매석 자진신고 운영…이후 무관용”

정부가 내일부터 닷새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처벌 유예 및 익명성을 보호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후 적발되면 ‘무관용 총력 대응’ 하겠다는 단호한 대처를 밀도 있게 전달했다.

■ 확진자 증가 둔화…“태아 전파 가능성 낮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폭 감소와 보건당국의 방역관리 계획을 자세히 보도했다. 또한, 최근 임산부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과 관련해 태아가 감염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정보전달 측면에서 유용했다.

■ 한국, 코로나19 단호한 투명성…외신 주목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의 투명성과 뛰어난 진단 능력, 침착한 대응을 인상적으로 평가하며 주목하고 있다고 각국 언론보도와 전문가의 평가를 구체적으로 전해 흥미로웠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3. 9.	시청률	0.010

【총 평】

코로나19 여파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과 독서를 권유하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는 시청자에게는 작지만 자상한 배려로 느껴졌을 것이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임산부에게 선물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터뷰는 귀를 기울일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정책인터뷰'에서 다룬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선물해요'는 식생활을 주도하는 주부들이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국민참여예산제'을 통해 전국 사업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구성 및 내용】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선물사업에 대한 정책인터뷰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줄줄이 중단되는 시민강좌와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면역력 증강, 그리고 유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을 소개해 주었다.

■ [정책인터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선물해요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임산부의 경우 매월 2번 친환경 농산물 받는 사업이 진행된다. 친환경 농업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연간 1인당 48만원에 상당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며 올해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충북, 제주, 기초지자체 14곳이며 대상자는 올해 1월 2일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이다.

■ 시민강좌 줄줄이 중단... '집콕족' 운동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강좌가 거의 중단되었다. 산책 또한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 '집에만 오래 있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신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문제를 제기한 후, '내과 전문의, 보건소 운동처방사' 등의 조언을 덧붙였다.

■ 코로나19, 책과 함께 이겨냅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3월의 사서추천도서를 소개해 주었다. 특히, 책의 한 구절을 읽어주면서 시작하는 부분도 좋았고, 작가의 인터뷰를 따로 준비해 취재물의 격을 높였다.

■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알아두세요.

일반국민 및 임산부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대상 예방수칙, 그리고 유증상자의 행동수칙과 유행지역 방문 시의 행동수칙 등을 소개해 주었고,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과 국민안심병원을 안내해 주었다.

프로그램	현장 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3. 12.	시청률	0.026

【총 평】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기획특집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라!’는 해양경찰 240기 536명의 탄생과정이 다큐형식으로 그려져 해양경찰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명예·용기·헌신을 슬로건으로 정의로운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내용적으로 잘 드러났다.

특히, 해양주권을 침범하는 사례와 해양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담당할 젊은 해양경찰의 39주 동안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인한 교육 훈련과정을 마치고 믿음직스런 대한민국의 해양경찰로 탄생하는 과정이 펼쳐져 흡인력을 높였다. 선박화재와 침몰하는 선박에서의 인명구조 훈련 등 긴박한 장면이 몰입감을 높였고 훈련생들의 소감과 각오가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기획특집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라!’는 대한민국 바다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의로운 해양경찰이 되기 위한 536명의 240기 신임 해양경찰학생들의 성장기를 잘 그려냈다. 특히, 해양경찰들의 수고와 노고, 전문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치열한 모습을 잘 담았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예측불허의 위험 상황 대처, 해양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현장 중심의 전문 역량 교육, 교육생들의 훈련 소감, 교수요원들의 교육 지침 등 교육생들의 24시간을 잘 관찰하였다.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라!’는 해양경찰 소개, 신임 해양 경찰 입교식과 각오, 화재진압 훈련과 기초체력 훈련 교육, 인명 구조 훈련 필수, 생활관 교육 규칙 지키기, 바다 한가운데의 실전 같은 훈련, 해양경찰교육원 역할과 240기 신임에 거는 기대로 구성했다.

선박 화재 시 탈출과 고립자 구조, 실제 선박화재 상황을 대비한 훈련과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업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 불법조업 어선 단속, 꾸준한 기초체력 단련, 자신감 함양의 중요성, 실전 같은 연습을 반복하며 강인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을 무게감 있게 담아냈다.

선박화재, 침몰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구조 훈련 등 실제 상황과 같은 긴박한 장면이 몰입감을 높였고 리얼하게 펼쳐져 현장감이 살아났다.

해양경찰교육원의 정규 교육 시간과 생활관에서 지켜야 할 교칙 등을 밀도 있게 살펴 해양경찰로서의 품위 유지, 규칙 위반 시 벌점 부과, 철저한 자기관리와 해양경찰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일련의 과정들도 조명해 이목을 끌었다.

해양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여 동안 2,500여건의 연안 해역에서 해상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해상 사고를 대비한 536명의 신임 해양경찰교육 24시는 “물불 가리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하라” 표어만큼 강렬하였다.